수백만 년 된 바위 훼손 … 남성 2명 공개수배

▲ 두 남성이 수백만 년 된 국립공원 암석을 아래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사진=X(Las Vegas Locally)

네바다주의 레이크 미드 국립 휴양공원(Lake Mead National Recreation Area)에서 수백만 년 된 국립공원의 암석을 훼손하는 남성들의 영상에 공분이 일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7일 이 공원의 하이킹 명소인 레드스톤 듄트레일(Redstone Dune Trail)의 암벽 위에 오른 2명의 남성이 암벽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들을 밀어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붉은색 암석층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두 남성 중 한 명의 딸로 보이는 소녀가 "아빠" 를 외치며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한 남성이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NPS)은 13일 남성들의 정보를 파악 중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부탁했다. 두 사람이 체포되면 협의에 따라 6개월의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분노했다. 남성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남성들이) 체포되면 떨어진 돌들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라" 며 일침을 날렸고, 다른 누리꾼은 "불쌍한 소녀는 저런 사람을 보고 자라야 한다" 는 댓글을 남겼다.

낙태권 폐지 후 난관수술 급증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여성의 난관수술(난관결찰술)이 정관수술(정관절제술)보다 2배나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츠버그대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난관수술과 남성의 정관수술이 18~30세의 젊은 층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관수술은 정관수술에 비해 약 2배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인구조사 4개 지역의 1억1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다.

연구팀에 의하면 임신의 영향과 양육의 책임이 모두 임신한 당사자에게 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정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젊은 여성은 불임 시술 후 후회할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피임 결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값싸고 개인 중심의 피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영구 피임을 포함한 모든 피임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난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직후 애리조나주 주의사당 건물 근처에서 '내 몸은 내가 선택'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네소타 의대 크리스틴 마크 교수는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흔하고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압박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결정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영구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피임법도 많다" 고 덧붙였다.

불확실성 커진 대형은행, 대규모 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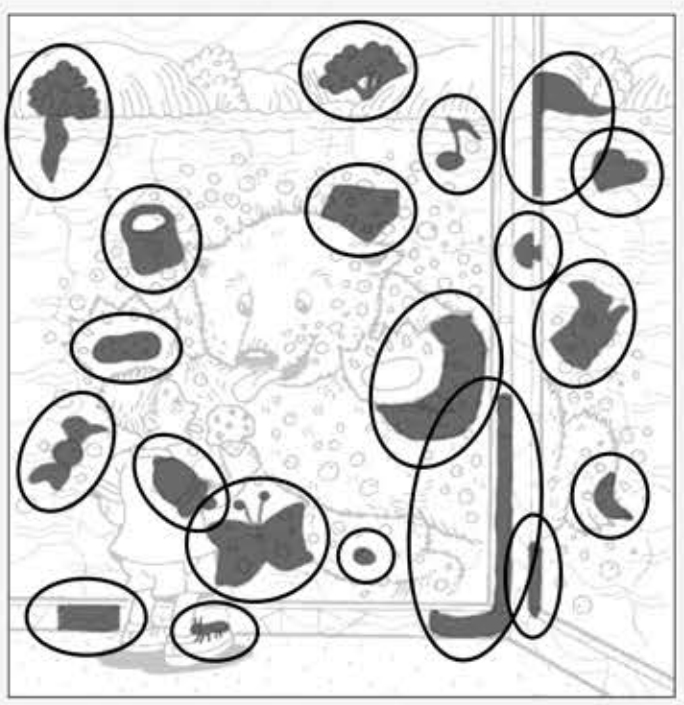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약 2000명의 직원을 줄였다. 앞으로 2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갖고 있는 씨티는 올 1분기에 총 7000명의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PNC파이낸셜 등도 올 1분기 각각 2000명 규모를 줄였다.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직원 수를 조정했다" 면서 "지난해 1월 우리는 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통보했다" 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순이자 마진 축소 등이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 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뉴욕 맨해튼에 있는 씨티은행 본사. 사진=X(citi)

대형 투자은행(IB)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경우 각각 900명과 396명을 감원했다. 신규 채용 역시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JP모건체이스는 1분기 2000여 명의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나 홀로 채용' 에 나서고 있다. 주요 IB들이 점포를 줄이는 반면 JP모건은 지점 수를 늘려 고객 접점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하에 신규 채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지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회사 설립
급여 관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사업 운영 전략
예산/재무 계획	IRS, FTB, CDTFA, EDD	재무/회계 상담
각종 세금 관련	세무 회계 감사	사업 가치 산정
	해외자산 FBAR-Report	각종 거래 관련

KIM & CHOI ACCOUNTANCY, P.C.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F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